



제7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



2025. 4. 14. - 11. 15.



로니상
리얼리티 팀

▶ 김찬중, 이진원, 마지윤



리포트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이로운가?

포스터

정말 친환경일까?
- 종이 빨대의 진실



각오한마디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얼리티팀(Real-E.T)입니다. 환경에 대한 궁금증, 그냥 넘기지 않고 직접 조사하고 실험하는 진짜 정보 탐색 팀, 환경 팩트체커예요! '리얼리티(Real-E.T)'는 Real + Environment + Truth의 합성어로, 환경에 관한 진짜 진실(Real Truth)을 찾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환경 상식', 과연 그건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는 질문하고, 검증하고, 직접 확인합니다. 팩트체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바른 실천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정확한 정보, 바른 실천! 리얼리티팀, 파이팅!

팩트체크 리포트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이로운가?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요즘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그런지 궁금해졌습니다. 종이 빨대를 실제로 사용해 보면 금방 젖거나 흐물 흐물해지는 불편함이 있었고, 어떤 기사에서는 종이 빨대가 오히려 재활용이 어렵거나 환경에 더 해롭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를 방수 처리하기 위해 플라스틱 코팅을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재활용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이 = 친환경”이라는 인식이 정말 사실인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직접 조사하고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1. 무슨 내용을 찾을 계획인가요?

-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의 차이점,
- 각각의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재활용 가능성,
- 사용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 어떤 형태의 자료를 찾을 생각인가요?

- 뉴스 기사, 환경부나 한국환경공단 자료,
- 해외 연구 결과, 제품 라벨 정보,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종이 빨대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참고할 예정입니다.

3. 어떤 방법으로 팩트체크 할 계획인가요?

- 정보 조사: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의 환경 영향을 비교 분석
- 직접 실험: 종이 빨대를 물에 담가서 변형 상태를 관찰하고, 플라스틱과 비교
- 설문조사: 종이 빨대에 대한 인식, 불편함 여부, 환경에 대한 생각 조사
- 결과 정리: 조사와 실험, 설문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느 쪽이 더 환경에 이로운지 판단

팩트체크 해보기

① 찾아보기

물어보기

직접해보기

반론이견

뉴스 기사에 대한 근거 조사

1. 박현주 기자, 「종이? 플라스틱? 빨대 친환경 논란 [뉴스설침]」아시아 경제, 2025.02.16.
<https://cm.asiae.co.kr/article/2025021316310999901>

빨대 5억개 사용 시 유해물질 배출량은

(단위: kg, 출처: 2024년 3월 환경부 용역보고서 '1회용품 저감정책 총괄작성 및 관련편안')

폐기 방법	배출물질	종이빨대	플라스틱빨대
매립	이산화탄소	258만	56만6000
	이산화황	1850	845
	인산염	705	0.016
	디클로로벤젠	12만	2만7200
소각	이산화탄소	270만	139만
	이산화황	1850	869
	인산염	518	123
	디클로로벤젠	11만9000	2만7600

그래픽 오성수 아시아경제

팩트체크 근거

- 환경부 용역 보고서(2024)에 따르면, 종이 빨대는 매립·소각 시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인산염, 독성 물질 등의 배출량이 플라스틱보다 많다는 분석 결과가 있음.
- 하지만 이 결과는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며, 국내 종이 빨대는 생분해성 코팅제를

사용해 PFAS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시험 성적서를 갖고 있음 (전국 종이 빨대협의회 주장).

- 환경부도 “해외 사례를 취합한 자료이며, 국내 제품을 일반화할 수 없다”고 해명함.

2. 김윤주 기자, “[단독] 알고 보니… 종이 빨대,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더 악영향”, 조선일보, 2024년 9월 4일,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4/09/04/FWX57BRKNRCI3BA6PIRG5PAUT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기사 내용 요약

“환경부 용역 보고서에서 종이 빨대가 이산화탄소, 산성화, 담수 독성, 인간 독성, 부영양화 등의 항목에서 플라스틱보다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팩트체크 근거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695740&menuId=10525>

환경부가 2023~2024년 수행한 LCA(전과정평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임. LCA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 영향을 수치로 평가하는 방식. 해당 보고서는 실제로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다음 항목에서 유해 수치가 높다고 분석함.

- 이산화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 약 4.6배 더 많음 (매립 기준)
- 산성화 지수: 2배
- 담수 생태 독성: 7배
- 인간 독성: 4.4배
- 부영양화: 4만4000배

환경부의 2023~2024년 전과정평가(LCA)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 빨대는 다음 항목에서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높은 환경 유해성을 보였습니다.

폐기 방법	배출 물질 (영향)	플라스틱 빨대	종이 빨대
매립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	56만6000kg	258만kg
	이산화황 (산성화)	845kg	1850kg
	인산염 (부영양화)	0.016kg	705kg
	디클로로벤젠 (담수 생태 독성)	5870kg	4만1000kg
소각	디클로로벤젠 (인간 독성)	2만7200kg	12만kg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	139만kg	270만kg
	이산화황 (산성화)	869kg	1850kg
	인산염 (부영양화)	123kg	518kg
소각	디클로로벤젠 (담수 생태 독성)	5810kg	4만900kg
	디클로로벤젠 (인간 독성)	2만7600kg	11만9000kg

자료=환경부

항목	종이 빨대가 더 높은 이유
이산화탄소	제조·코팅·분해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음 (4.6배)
산성화 지수	소각 시 산성 물질 배출 증가 (2배)
담수생태독성	코팅제·잉크 등에서 유해 화학물질 유출 (7배)
인간 독성	접착제·코팅제에서 인체 유해물질 용출 가능 (4.4배)
부영양화	분해 시 질소·인 성분 유출로 수질 오염 유발 (4만4000배)

3. 김예윤 기자, 종이빨대 친환경 논쟁… ‘분해 빨라’ vs ‘탄소배출 많아’, 동아일보 2023.11.2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21/122272944/1>

종이 빨대 친환경성 둘러싼 논쟁

“종이 빨대, 친환경이다”	“종이 빨대가 더 친환경”
“PFAS(과불화화합물) 들어 있다” (8월 벨기에 연구진)	영구적 화학 물질 “국내 빨대엔 해당 물질 없어” (9월 국내 종이빨대 제조업체)
“생산과정서 플라스틱 빨대보다 5.5배 배출 많아” (미국 환경보호국)	탄소 배출 “전 과정 계산에 따라 해석 달라져” (일부 환경단체)
“PE 코팅, 재활용 어려워” (일부 환경단체)	분해와 재활용 “플라스틱 분해 500년, 종이 분해 150~200일” (미국 환경보호국)

팩트체크 근거

- 벨기에 앤트워프대 연구에서 종이 빨대의 90%에서 PFAS(유해 화학물질) 검출되었으나, 국내 제조업체들은 PFAS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공개함.
- 미국 환경보호청(EPA) 보고에 따르면 종이 빨대는 자연 분해는 빠르지만(150~200일), 생산 시 탄소 배출량은 플라스틱보다 5.5배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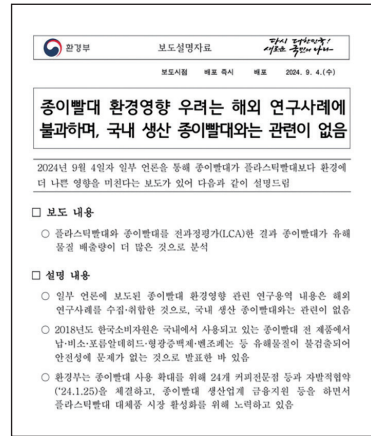
- 단, 나무 벌채 여부, 소각 시 배출 차이, 제품 무게 등에 따라 탄소 배출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전과정평가(LCA)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4. 권인택 편집위원, 친환경이라고 믿었던 종이 빨대의 감춰진 진실, 탄소중립투데이, 2024.09.24., <https://www.net-zer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

팩트체크 근거

- 환경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 빨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담수 생태 독성, 인간 독성, 부영양화 등에서 플라스틱보다 유해한 수치를 보였음.
- 코팅 처리된 종이 빨대는 생분해되지 않거나 미세플라스틱 및 유해물질(PFAS 등)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일부 해외 제품 기준이며, 국내 종이 빨대는 생분해성 코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다.



5. 환경부, (설명) 종이빨대 환경영향 우려는 해외 연구 사례에 불과하며, 국내 생산 종이빨대와는 관련이 없음, 2024.09.0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9072>

내용 요약

- 해당 LCA 연구는 ‘해외 연구사례’이며,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종이 빨대 전체를 대표 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즉, 국내 제품에 일반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6. 이종희, 종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오염 커도 선진국은 종이 빨대 고수, 평판 경제신문, 2024.09.04., <https://contents.premium.naver.com/rema/socialcapital/contents/240904122551151ge>

팩트체크 근거

- 환경부 전과정평가(LCA)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 빨대는 이산화탄소 배출, 담수 독성, 인간 독성 등에서 플라스틱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음.
- 벨기에 엔트워프대 연구에 따르면 종이 빨대에서 PFAS(영구화학물질)이 플라스틱보다 더 많이 검출됨.
- 다만, 해당 연구들은 일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했고, 국내 종이 빨대는 생분해성 코팅 사용과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는 반론도 있음.

7. 박종진. 저물어가는 종이 빨대 시대...스타벅스코리아,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할까, 위키리크스한국, 2025.02.17.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no=164023&utm_source

팩트체크 근거

- 환경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 빨대가 이산화탄소, 독성, 부영양화 등 유해 물질

배출에서 플라스틱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함(LCA 기준).

- 종이 빨대는 생분해되지 않거나 플라스틱 코팅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렵고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할 수 있음.
- 환경부는 이러한 논란에 따라 플라스틱 vs 종이 빨대의 정밀한 LCA 평가를 새롭게 착수함.
- 일본 스타벅스와 미국 정부(트럼프 행정부)도 소비자 불편과 환경적 재검토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을 선언함

결론

종이 빨대가 무조건 친환경이라는 인식은 과학적 근거와 소비자 반응 모두에서 흔들리고 있음. 정부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제품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다시 평가(LCA) 중이며, 국내 대형 브랜드(스타벅스 등)도 그 결과에 따라 빨대 정책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음.

8. 자원순환사회연구소, 플라스틱은 종이보다 탄소배출이 적을까?, 2025.1.19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waterheat&logNo=223730851375&navType=by팩트체크> 근거

- 종이는 제조 시 벌목, 펄프 가공, 운송, 생산 등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특히 벌목 시 나무에 저장된 탄소 손실이 크다는 분석이 있음.
- 미국 EPA WARM 자료에 따르면, 골판지 제조 시 탄소 배출량은 플라스틱의 약 54% 수준이나, 벌목에 따른 탄소 손실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종이가 플라스틱보다 1.7배 더 많다는 분석도 존재.
- 그러나 종이 재활용률(한국 85%)이 매우 높고, 순환림 기반 조달과 천연림 보호가 병행된다면 종이가 플라스틱보다 지속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음.
- 플라스틱은 무게가 가볍고 소각 시 에너지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탄소 효율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도 있음.

결론

종이 vs 플라스틱의 탄소배출 비교는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벌목 방식, 재활용률, 제품 무게, 수송거리, 에너지 회수 유무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정밀한 국내 분석이 필요. 단순 비교보다는 불필요한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순환림-재활용 기반의 종이는 장기적으로 플라스틱보다 지속 가능성 면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음.

9. SBS뉴스.「[뉴스딕] ‘음료에 꽃으니 이상한 맛’…스벅 종이 빨대, 이유 있었다」, SBS, 2022.05.0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40244&link=ORI&cooper=NAVER

팩트체크 근거

- 2022년 4월경, 스타벅스 종이 빨대에서 휘발유·페인트 냄새와 이상한 맛이 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급증,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 글 다수 게재됨.
- 스타벅스 코리아는 문제가 된 빨대를 전량 회수하고, 해당 공급업체가 코팅액의 배합 비율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문제였다고 해명함.
- 코팅액은 종이 빨대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으나, 조정된 비율이 냄새의 원인이 되었으며, 공인 검사기관을 통해 안전성은 확인되었음.
- 이번 사례는 종이 빨대의 품질 관리 및 안전성, 소비자 경험 문제도 환경성과 별도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됨.

▶ 제품 라벨 및 안전성 정보 – 스타벅스 종이 빨대 사례

- 이상한 냄새 논란
2022년 4월 말, 스타벅스 종이 빨대에서 휘발유나 페인트 같은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됨.
- 조치 내용
스타벅스 코리아는 문제가 된 빨대를 전량 회수했고, 문제 원인은 “강도 강화를 위한 코팅액 배합 비율 조정”으로 밝혀짐.
- 공식 설명
- 종이 빨대는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인체에 무해함이 검증된 제품
- 코팅 성분의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특정 제조 배치에서 냄새 문제가 발생
- 제품 라벨상 정보(예상 포함 항목)
‘식품용’, ‘무독성’, ‘재활용 가능’, ‘국내 제조’ 등의 표기
※ 실제 포장에는 명시적으로 코팅 성분이나 제조사명은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10. 이해나 기자, 한혜정 인턴기자,「종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 만큼 환경에 악영향… 이유는?」, 헬스조선, 2024.09.05.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

09/05/2024090501764.html

팩트체크 근거 요약

- 환경부 용역보고서(2024) 결과에 따르면,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일부 항목에서 유해 물질 배출량이 더 많음.
 - 이산화탄소 배출량(매립 기준): 종이 258만kg > 플라스틱 56.6만kg (약 4.6배 많음)
 - 산성화 영향(이산화황): 종이 1850kg > 플라스틱 845kg
 - 인간 독성(디클로로벤젠): 종이 12만kg > 플라스틱 2.72만kg
- 종이 빨대는 폴리머 코팅이 필요하여 실제로는 생분해되지 않으며, 재활용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함.
- 코팅 분리 과정이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다수의 종이 빨대는 결국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됨.
- 환경부는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 “해외 사례를 참고한 분석이며, 국내 제품에 대한 일반화는 어렵다”고 해명했음.

11. 김진화 기자, 「플라스틱 빨대 컴백…‘스벅’ 변심 이유는?」 kbs 뉴스, 2025.06.2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89544&ref=A>

팩트체크 근거

- 스타벅스는 2018년부터 종이 빨대를 도입했으나, 2025년 6월 플라스틱 빨대를 일부 매장에 재도입함.
- 이유는 종이 빨대의 사용 불편함(젖음, 흐물거림 등)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되었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재도입한 것임.
- 재도입된 플라스틱 빨대는 식물 유래 성분을 사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며, 전용 수거함을 통해 재활용 예정.
-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은 “종이와 플라스틱 모두 대부분 소각되므로 실질적인 친환경 효과는 재활용 체계에 달려 있다”고 지적함.
- 환경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정책이 정권 교체 이후 유보되면서, 업계의 정책 혼선과 함께 종이 빨대 사용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남.

12. 최승한 기자, [르포]플라스틱 빨대 재도입한 스타벅스… 편의성이나, 환경 가치나, 파이낸셜 뉴스, 2025.07.01 <https://www.fnnews.com/news/202506301507283459>

팩트체크 근거

1. 스타벅스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 이유

2025년 6월 25일부터 일부 매장에서 사탕수수 기반 식물성 플라스틱 빨대 시범 도입
이 빨대의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미취학 아동, 고령자 등)의 요구 반영
기존 종이 빨대는 빨리 흐물거리고, 사용감이 좋지 않다는 불만이 많았음

2. 고객·직원 반응

고객 대부분은 “더 편리하다”며 환영
직원은 클레임이 줄었다고 긍정적
그러나 분리수거 어려움, 혼합 폐기 문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

3. 정부 정책 변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금지 정책(2022년 발표)은 소비자 불편으로 무기한 연기
정책의 실용성과 유연성 강조

4.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비판

“상징성 있는 브랜드가 플라스틱으로 돌아가면 환경 메시지가 약해진다”
“사탕수수 기반이라 해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식물 유래라는 말이 소비자에게 착한 이미지로 오해되지 않게 주의 필요”
환경단체는 정부 규제 완화가 오히려 기업 환경 의식 낮춘다고 비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논문 자료

1. SMC 스페인.벨기에 안트워프대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Food Additives & Contaminants 2023년 8월 25일 <https://sciencemediacentre.es/en/reaction-study-belgium-finds-pfas-straws-including-paper-and-bamboo-straws> 팩트체크 근거

- 2023년 벨기에 안트워프대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Food Additives & Contaminants에 발표한 논문



에서, 39종의 시판 빨대를 분석함.

- 종이 빨대의 90%, 대나무 80%, 플라스틱 75%, 유리 40%에서 PFAS(영구화학물질) 검출됨.
- 스테인리스 빨대에서는 PFAS 미검출.
- PFAS는 물·열에 강하고 분해되지 않는 합성 독성물질로, 일부는 유럽에서 금지된 화학물질(PFOA)도 포함됨.

결론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이라는 인식과 달리, 발수 코팅을 위해 PFAS가 사용된 경우 생분성이 아니며 환경에 해로울 수 있음. 농도는 낮지만, 음료에 녹아들 가능성과 인체 내 화학물질 누적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함. 해당 연구는 과학적으로 신뢰 가능하지만, 유럽 제품 대상이며 국내 제품에는 직접 접하기 어려움.

2. 벨기에 안트워프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Food Additives & Contaminants, 2023.8.24 「표적 및 의심 스크리닝 접근법을 사용한 상업용 빨대 내 PFAS 평가」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9440049.2023.2240908>

팩트체크 근거 요약

- 39종의 빨대(종이, 대나무, 플라스틱, 유리, 스테인리스강)를 조사한 결과, 스테인리스 빨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빨대에서 PFAS 검출
- 종이 및 대나무 빨대에서 PFAS가 가장 높은 비율로 검출됨 (종이: 90%, 대나무: 80%)
- PFAS는 빨대 제조 중 첨가되거나 원재료 공급망 단계에서 이미 존재 가능
- PFAS는 생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환경에 잔류하며,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
- 생분해성이라고 홍보된 빨대라도 PFAS 함유 시 실제로는 생분해되지 않음
- 검출된 주요 물질: PFOA, TFA, TFMS 등, 일부는 EU에서 금지된 독성 화학물질

결론

“친환경”이라 여겨졌던 종이·대나무 빨대에도 PFAS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플라스틱 이상으로 환경과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 논문은 신뢰성 있는 실험 기반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유럽 시장 제품 대상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함.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김무연 사무관 전화인터뷰 2025.6.24

Q1.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더 이로운지,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200년 이상 걸리지만, 종이는 몇 개월이면 분해됩니다.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도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자는 흐름이 있고, 환경부도 그런 취지에서 종이 빨대를 권장해왔습니다.

Q2. 종이 빨대도 코팅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이 빨대는 대부분 PE-Free(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코팅을 사용하고 있어요. 재활용도 가능하고, 미세플라스틱도 검출되지 않는 제품이 많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오염된 종이 빨대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재활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결론: “재활용 가능”보다 “재활용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이 있느냐”가 중요

구분	내용
가능성	PE-Free 코팅으로 재활용 기술적으로 가능
현실	오염·분리배출 미흡으로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처리
정책	환경부도 소각·매립 기준으로 환경영향 평가 수행
개선 필요	소비자 인식, 분리배출 시스템, 수거·선별 체계 강화 필요

Q3. 종이 빨대가 생산·폐기 과정에서 오히려 탄소 배출이 더 많다는 연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 “그 연구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국내 종이 빨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국내 실정에 맞는 전과정평가(LCA)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쯤 결과가 나오면 정책 방향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Q4. 환경부는 앞으로 일회용 빨대나 컵에 대해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나요?

-> “현재는 제도기간이라서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컵 사용을 강제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어요. 대신 자발적으로 다회용 컵이나 친환경 빨대를 사용하는 매장을 지원하고 있고,

2026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장 인터뷰 정리

인터뷰 대상 -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세겐 커피 매장 점주님 (2025년 6월28일)

질문 및 점주님 답변 요약

Q1. 예전에 종이 빨대를 사용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네, 종이 빨대를 잠깐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Q2. 종이 빨대를 사용해본 경험상,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불편했나요?

-> “환경을 생각해서 도입한 건 좋았지만, 빨대가 금방 흐물흐물해져서 아이스 음료에 쓰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사용 중 찢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Q3. 지금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데, 종이 빨대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 “현재로서는 손님 불편이 커서 바꾸긴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튼튼하고 오래가는 종이 빨대가 나온다면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Q4. 손님들은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 중 어떤 걸 더 선호할 것 같으세요?

-> “대부분은 플라스틱 빨대를 더 편하게 느끼세요. 종이 빨대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어요.”

Q5. 환경을 생각하면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종이나 플라스틱이냐보다, 개인이 빨대를 안 쓰는 습관을 들이거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현실에서는 비용과 편의성도 같이 고려해야 해서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 대상 -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메가커피 매장 점주님 (2025년 6월28일)

Q1. 지금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네, 저희는 일단 손님들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빨대를 선택하다 보니 아직은 플라스틱 빨대를 쓰고 있어요. 종이 빨대는 음료에 오래 담그면 흐물흐물해지고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Q2. 종이 빨대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저희 매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책을 따르고 있어서, 빨대 종류도 본사에서 정해진 걸 사용해야 해요. 지금으론 본사 차원에서 종이 빨대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 것 같고, 매장에서 따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Q3. 손님들이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환경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 “대부분은 그냥 익숙하게 쓰시는 편이에요. 다만 젊은 층 일부는 ‘환경에 안 좋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빨대 없이 드시거나 텀블러를 챙겨오시는 분은 아주 드물어요.”

Q4. 환경을 위해 빨대를 바꾼다면,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 “일단 단가가 올라가는 게 제일 큰 걱정이고요. 그리고 빨대 품질이 떨어져서 손님이 불편함을 느끼면 매장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Q5. 점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빨대를 어떤 걸 쓰냐보다는, 가능한 한 빨대를 안 쓰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 텀블러를 쓰거나, 음료 마시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대상 - 서울 서대문구 투썸플레이스 서대문홍은점 직원 (2025년 6월28일)

Q1. 요즘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손님들은 종이 빨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 “생각보다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 아이스 음료를 오래 두고 마시는 경우, 빨대가 흐물흐물해져서 마지막에 마시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Q2. 혹시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찾으시는 손님들도 있으신가요?

-> “네, 있어요. ‘혹시 플라스틱 빨대 남은 거 없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텀블러나 개인 빨대를 가져오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종이 빨대를 더 불편해 하시는 편이에요.”

Q3. 환경을 위해서 종이 빨대를 쓰는 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이나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네, 뉴스에서 종이 빨대도 코팅이 되어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다는 말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도 ‘이거도 결국 쓰레기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저희도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리게 되어 있어서 좀 아쉽긴 해요.”

느낀 점 및 알게 된 점

이번 인터뷰를 통해 종이 빨대가 환경을 위한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부 김무연 사무관님은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보다 분해가 빠르고, 국내 제품은 미세플라스틱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코팅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빨대가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오염된 종이 빨대를 재활용 대신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커피 매장 점주님들과 직원분들은 공통적으로 종이 빨대가 불편하다는 손님 반응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흐물거리고 찢어지는 문제, 가격이 비싼 문제,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빨대를 아예 안 쓰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종이냐 플라스틱이냐’보다 사용 습관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는 “종이 = 친환경”이라는 단순한 생각보다, 제품의 전 과정과 사람들의 행동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경 문제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입장과 현실을 함께 고려해 나가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대상 -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점 스타벅스 매장 직원 (2025년 7월 5일)

Q1. 사용한 종이 빨대는 일반쓰레기로 버리시나요, 아니면 재활용하시나요?

-> “종이 빨대는 일반쓰레기로 버립니다.”빨대가 음료에 젖어 있어서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하기가 어렵고, 매장에서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라고 안내받았어요.”

Q2. 손님들이 종이 빨대를 선호하시나요?

->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아이스 음료에 오래 담그면 빨대가 흐물흐물해져서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Q3. 플라스틱 빨대를 따로 요청하는 손님도 있나요?

-> “가끔 어르신들이 플라스틱 빨대 있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Q4. 왜 스타벅스는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하는 건가요?

-> “본사 정책이라고 들었어요. 최근에는 사탕수수 성분이 일부 들어간 플라스틱 빨대를 일부 매장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Q5. 이 매장은 언제부터 플라스틱 빨대로 바뀌나요?

-> “저희 매장은 바뀌지 않는 걸로 알아요. 일부 매장만 도입하는 걸로요.”

인터뷰를 마치고 든 생각

스타벅스 직원 인터뷰를 통해, 종이 빨대가 꼭 친환경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종이 빨대는 결국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손님들 사이에서도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아이스 음료에 담그면 흐물해진다는 말은, 저희가 실험하면서도 느꼈던 부분과 같았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플라스틱 빨대를 찾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빨대는 없고, 편의성도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점 백다방 점주님 (2025년 7월 5일)

Q1. 현재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 중이신데, 종이 빨대로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지금으로서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손님들이 종이 빨대를 불편해하셔서 바꾸는 게 오히려 컴플레인인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프랜차이즈라서 본사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Q2. 현재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시나요?

-> “네, 나는 찬성이예요.

위생 면에서도 플라스틱 빨대가 더 낫고, 음료에 오래 담가도 모양이 유지되니까..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손님들의 편의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뉴스나 다른 매체를 보면 ‘종이 빨대가 환경에 나쁘다’, ‘재활용도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정보가 더 와 닿았어요. 예전엔 종이 빨대가 더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니더라고. 학생 여러분도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계속 사용하는 데 찬성합니다. 딱히 좋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느낀 점

백다방 점주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도 종이 빨대보다 플라스틱 빨대를 선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종이 빨대가 더 환경에 좋다고 당연히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친환경’이라는 말만 믿지 말고 스스로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점주님께서 뉴스나 자료를 보고 종이 빨대가 재활용도 잘 안 되고, 환경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며, 단순한 이미지나 광고보다, 실제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찾아보기

물어보기

③ 직접해보기

반론이론

직접 실험 해보기

1. 먼저 종이 빨대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98명이 ‘예’, 2명이 ‘아니오’라고 응답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 빨대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종이 빨대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62명이 ‘자주 느낀다’, 29명이 ‘가끔 느낀다’, 7명이 ‘거의 없다’, 2명이 ‘사용해본 적 없다’고 응답해주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종이 빨대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 중, 어느 쪽이 환경에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47명이 ‘종이 빨대가 더 낫다’, 16명이 ‘플라스틱

빨대가 더 낫다', 31명이 '비슷하다', 6명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주었습니다.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아직 어떤 빨대가 더 환경에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저희는 종이 빨대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에 어떤 빨대가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설문 결과 분석

대부분의 사람들(98%)이 종이 빨대를 사용해 본 적이 있었고, 91%는 불편함을 어느 정도 느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빨대가 환경에 더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었습니다. 종이 빨대가 더 낫다(47%)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비슷하다(31%)'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이 더 낫다'(16%)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종이 빨대를 실제로 사용해 보고 느낀 불편함이나 효과에 대한 의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이 설문 결과는 단순히 '종이 빨대는 친환경이다'라는 생각보다, 실제로 사용해본 경험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실험 활동

• 실험 기간: 2024년 6월 14일 ~ 6월 21일 (1차 관찰 기준)

• 준비물

- 스타벅스 종이 빨대
- 메가커피 플라스틱 빨대
- 플라스틱 통 2개
- 흙, 물

• 실험 방법

- 플라스틱 통에 각각 물과 흙을 넣음.
- 스타벅스 종이 빨대와 메가커피 플라스틱 빨대를 각각의 통에 꽂음.
- 실내에서 1주일 동안 관찰.

• 1주차 관찰 결과 (6월 21일)

- 플라스틱 빨대: 물과 흙 모두에서 눈에 띄는 변화 없음. 모양 그대로 유지됨.
- 종이 빨대
 - 물에 닿은 부분: 손으로 잡으면 눌릴 정도로 약간 축축해짐.
 - 흙에 닿은 부분: 마찬가지로 물기 머금은 듯 약간 부드러워짐.
 - 그러나 아직 완전히 녹거나 부서지지는 않음.



그림1> 6월14일



그림2) 6월21일



그림3) 6월28일

• 2주차 관찰 결과 (6월 28일)

- 플라스틱 빨대

→ 물과 흙 속 모두에서 변화 없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모양, 상태 그대로 유지됨.

- 종이 빨대

▶ 물에 담근 종이 빨대

→ 지난주보다 더 많이 축축하고 젖은 상태였음.

→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폭 들어가고, 물기가 손에 배어나올 정도로 약해짐.

▶ 흙에 꽂은 종이 빨대

→ 흙과 맞닿은 부분은 지난주보다 더 말랑해졌지만, 물에 담근 것만큼 심하진 않음.

→ 모양은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점점 더 약해지고 있음.

• 4주차 관찰 결과 (7월 11일)

- 플라스틱 빨대

→ 물과 흙 속 모두에서 여전히 변화 없음. 표면에 약간의 먼지와 흙만 묻었을 뿐, 형태

와 색 모두 처음과 거의 똑같음. 손으로 눌러도 단단하게 유지됨.

- 종이 빨대

▶ 물에 담근 종이 빨대

→ 종이 표면이 많이 흐물흐물해지고 일부는 겉부분이 벗겨지거나 찢어진 채로 떠 있음.

→ 손으로 잡으면 쉽게 찢어지고, 빨대의 형태를 거의 유지하지 못함.

→ 내용물이 조금씩 흐트러져 물이 약간 뿌옇게 변함.

▶ 흙에 꽂은 종이 빨대

→ 흙과 맞닿은 부분이 많이 약해지고 말랑해졌으며, 눌렀을 때 쉽게 휘어짐.

→ 전체적인 형태는 아직 남아 있지만, 뽐아보면 일부는 흙에 눌러 구겨진 자국이 남아 있음.

→ 종이 표면이 약간 검게 변한 부분도 있음 (습기와 흙 때문으로 추정됨)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종이 빨대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었고, 대부분이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 중 어떤 것이 환경에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 빨대가 더 낫다'고 생각한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비슷하다', '플라스틱이 더 낫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실험을 통해서도 종이 빨대가 4주가 지나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이 빨대가 생각보다 쉽게 썩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에 담근 종이 빨대는 축축해졌고 약해졌지만, 흙에 꽂은 빨대는 아직 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플라스틱 빨대는 물이나 흙 속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관찰하고,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비교해보는 경험을 통해 단순한 정보보다 직접 실험하고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 작성하기

저희 리얼리티팀은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더 이로운가?”라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뉴스 기사, 논문, 정부 보고서, 전문가 인터뷰, 매장 인터뷰, 설문조사, 직접 실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종이 빨대는 무조건 친환경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환경부 전과정평가(LCA)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환경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종이 플라스틱보다 약 4.6배 많음.

산성화 영향: 약 2배

담수 생태 독성: 7배

인간 독성: 4.4배

부영양화: 4만 4000배

관련 자료 및 원인 분석

• 환경부 공식 설명자료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3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menuId=286&boardId=169574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40>

환경부는 2024년 9월 4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 보도에 인용된 수치는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연구용역 결과이며, 국내 종이 빨대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서 제시된 수치들은 제품 생산, 코팅,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종이 빨대의 제조 공정이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또, 벨기에 앤트워프 대학의 연구 논문에서는 종이 빨대의 90%에서 PFAS라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고, 이 물질은 몸과 환경에 오래 남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내 종이 빨대는 PFAS가 나오지 않는다는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고, 플라스틱 없는 코팅을 사용한다는 주장도 있었습

니다. 환경부도 “해외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 제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직접 4주 동안 실험도 해 보았는데, 플라스틱 빨대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 종이 빨대는 물에 담근 경우 흐물흐물해지고 찢어졌지만, 흙 속에서는 아직 형태가 남아 있었고, 완전히 분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00명 중 98명이 종이 빨대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91%는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 환경에 어떤 빨대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양했고, “잘 모르겠다”고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커피 매장 점주님과 직원 인터뷰를 통해서도 종이 빨대는 흐물해지고 찢어져서 손님들이 불편해했고,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낮아 쉽게 도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

종이 빨대가 꼭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 전체 과정을 보고, 성분과 재활용 가능성, 사용자 편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해결 방안

1.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 과정을 평가하고, 결과를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는 종이 빨대라고 하면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수치로 비교하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부나 기업이 ‘전과정평가(LCA)’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소비자들이 어떤 빨대가 환경에 더 이로운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빨대에 사용된 코팅이나 성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PFAS와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품 포장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문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3. 플라스틱이나 종이보다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매장 점주님들께서도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텀블러나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고,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컵 형태를 확대하는 등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4. 매장에서 다양한 빨대 선택지를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선택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종이 빨대, 다회용 빨대, 빨대 없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적인 선택을 한 고객에게는 할인이나 마일리지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친환경 소비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5. 학교에서도 뉴스, 실험, 팩트체크 활동을 통해 환경을 배우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번 체커톤 활동을 통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스스로 조사하고 직접 실험 해보는 과정이 훨씬 깊은 배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경 문제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을 듣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저희 리얼리티팀은

‘종이 빨대는 무조건 친환경’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정확한 정보와 바른 실천이 함께 갈 때 진짜 환경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팩트에 근거한 환경 실천을 이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정보, 바른 실천!
리얼리티팀, 파이팅!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요즘 많은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 빨대는 겉 보기에는 더 환경에 좋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전과정평가(LCA) 수치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하고, 재활용이나 분해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팩트 기반의 포스터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종이=친환경’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전 과정(LCA)을 따져보는 진짜 친환경 소비의 기준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 상세설명

1. 질문 제기

“종이 빨대는 정말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좋을까?”

포스터 상단에 큼직하게 배치하여 관심을 끌도록 했습니다.

2. 팩트체크① - 전과정 환경영향 수치 비교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고, 물 사용량도 많다는 점을 그래픽으로 요약했습니다.

3.팩트체크② - 실험과 설문 결과

우리가 직접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의 분해 실험을 했고, 종이 빨대가 오히려 더 늦게 분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1%가 종이 빨대가 불편하다고 응답했습니다.

4.현장 인터뷰

매장 운영자 인터뷰를 통해, “손님들이 종이 빨대에 불편을 느끼며 다시 플라스틱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5.메시지와 제안

“겉모습이 아니라 전 과정을 따져봐야 해요”

“정확한 정보, 바른 실천!”

“가장 친환경적인 선택은 ‘빨대 없이 마시기’입니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오프라인 캠페인 - 아파트 단지 및 매장 포스터 부착

우리 팀은 직접 제작한 포스터를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 엘리베이터, 커뮤니티 게시판에 부착했습니다. 포스터에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 확인한 종이-플라스틱 빨대의 분해 상태 사진과 함께 “빨대도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할 수 있다”, “겉모습보다 전 과정을 따져보자”는 메시지를 담아 시민들이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하여 직원의 동의를 받은 후, 매장 벽면과 포스터 게시판에 콘텐츠를 부착하였습니다. 스타벅스는 종이 빨대 사용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매장 중 하나로, 우리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들이 ‘종이 빨대 = 무조건 친환경’이라는 인식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그 외에도 CU 편의점 입구 게시판에 포스터를 부착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활동을 마치며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착해 보이는 소비’가 실제로는 더 큰 환경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우며, 전 과정을 따져보는 소비 습관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조사와 실험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경험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팀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나누는 작은 실천가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소감

김찬중

이번 청소년 체커톤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팩트체크 리포트와 포스터 콘텐츠를 직접 제작 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제를 정한 뒤 관련 자료를 찾고,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정리해 포스터로 표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그만큼 끝까지 해냈을 때의 보람과 성취감도 컸습니다. 특히 실험이 잘 되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해서 중간에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터를 실제 아파트나 매장에 붙이고, 친구들과 공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반응해주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만든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겉모습만 보고 ‘친환경’이라고 믿었던 종이 빨대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제품이든 전 과정을 따져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소비와 실천을 해나가야겠다는 다짐도 생겼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미션 수행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경험이 의미 있는 배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팩트와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작은 체커’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진원

체커톤 활동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포스터를 만드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조사, 실험, 회의, 디자인, 홍보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팀원들과 의견이 다를 때는 포스터 문구 하나를 두고도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이 활동을 시작했는지를 다시 떠올리며 서로 양보하고 조율했던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덕분에 완성된 포스터를 보았을 때는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함께 만든 팀워크의 증거처럼 느껴져 더욱 뿌듯했습니다. 포스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게시판, 스타벅스 매장, CU 편의점, 분리수거장 등에 직접 붙이며 홍보 활동도 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만든 콘텐츠가 실제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어서 매우 신기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진짜 친환경이란 제품 겉면에 쓰인 단어가 아니라, 그 제품이 만들어지고 버려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종이니까 착하다’는 생각보다는, 더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윤

처음 체커톤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팩트체크’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자료를 찾고, 실험을 하고, 포스터를 만드는 일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험하면서 종이 빨대가 잘 분해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늦게 변하거나 그대로인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종이니까 당연히 친환경이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 체커톤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이 포스터에 쓰이고, 사람들이 그 포스터를 보고 관심을 보였을 때는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이제는 어떤 물건이 ‘좋다’, ‘착하다’고 말할 때 그냥 믿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나도 환경을 위해 빨대를 쓰지 않거나,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작은 실천부터 해나갈 것입니다. 체커톤은 단순히 공부하는 활동이 아니라, 나와 주변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알려준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